

# 239개대 성폭력센터 운영실태 전수조사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 23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실태 설문조사를 31일부터 3주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추진단)’이 25일 서울역 인근에서 연 4차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제안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바탕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실태 설문조사는 4년제 대학 193개교, 전문대 136개교(원격대학·대학원대학 등 제외) 등 전체 239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기간은 31일부터 약 3주간이다. 조사 항목은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현황,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피해자 구제 관련 사안 조사 및 처리, 예방교육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의 운영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자문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대학 현장의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과 학생,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위원 구성을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했다.

성폭력 사안 관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전담 국산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구성을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안 조사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내에서 상담업무와 조사 업무를 반드시 분리해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고, 신고된 사안 관련 수사, 재판 등이 시작된 경우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절차 등 자체적인 처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자문위가 제안한 대학 내

## 대학 내 성폭력 근절 제도개선 권고안 실행방안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기능 개선 방안 도출기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권고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대학 현장의 성폭력·성희롱 전담기구(센터)

설치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안처리 절차, 위원회 구성,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성희

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하반기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인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자문위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의 토대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코스모스와 잠자리 30일 오전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인근 들녘에서 잠자리 한 마리가 활짝 꽃망울 터트린 코스모스 꽃밭을 날아다니며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 광주·전남 청소년 아침결식·비만을 ↑, 흡연율·우울감 ↓

### 호남통계청 건강 실태조사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결식과 패스트푸드 섭취율, 비만율은 증가한 반면 흡연율과 흡연율, 우울감 경험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광주·전남지역 학생인구는 광주 27만8000명, 전남 28만4000명으로 각각 지역 전체 인구의 18.5%와 15.8%를 차지했다.

2017년 중·고등학생 비만율은 광주가 13.0%로 2011년 8.8%보다 4.2%포인트 증가했고, 전남은 14.0%로 2011년 7.4%보다 6.6%포인트 늘었다.

중·고등학생의 주5일 이상 아침 식사 결식률은 광주가 2017년 32.2%로 2011년 25.9%보다 6.3%포인트 증가했고, 전남은 30.1%로 6.3%포인트 증가했다.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광주가 22.7%로 7.8%포인트 늘었고, 전남은 18.0%로 5.6%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광주가 15.3%로 2011년 16.0%보다 0.7%포인트 감소했고, 전남은 15.2%로 3.2%포인트 줄었다.

흡연율은 광주가 7.1%로 4.8%포인트, 전남은 8.0%로 4.0% 각각 감소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광주가 24.5%로 9.9%포인트 줄었고, 전남은 23.1%로 8.9%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평균 우울감 경험률은 25.1%로 광주는 0.6%포인트, 전남은 2.0%포인트 낮

았다.

중·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광주·전남 모두 6.3시간으로 조사됐다.

2017년 다문화학생은 광주가 2606명으로 전년 대비 202명(8.4%) 증가했고, 전남은 7819명으로 842명(12.1%) 늘었다.

중·고등학생의 학교 안전교육 경험률은 광주 83.5%, 전남 87.4%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아동학대 건수는 광주가 346건으로 전년 대비 93건(36.2%) 증가했고, 전남은 1229건으로 472건(6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중업체, 드론으로 음식 배달서비스 시작

중국 음식배달 어플 1위 업체인 어러머(饿了?)가 드론 배송 운항 항로를 허가받았다.

30일 중국 IT 전문 매체인 증권춘자이신 등에 따르면 어러머는 최근 정부로부터 1차 드론 배송 운항 항로를 허가받았으며, 드론을 음식 배달 서비스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이번에 허가를 받은 배송 운항 항로는 상하이 진산(金山)산업단지 58km 내 17개 노선이다. 음식 배달 서비스 대상 업체는 100여 곳이다.

회사는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가 운영되면 음식 주문 접수에서 배송완료까지 평균 20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는 음식을 드론으로 직접 고객에게 배달하는 게 아니라 배달기사-드론-배달기사 순서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어러머는 또 올해 하반기쯤 대도시의 오피스 빌딩 500곳에서 드론이 배달한 음식을 빌딩 내로 운반하는 '배달 로봇'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 산하 어러머와 텐센트 계열 메이푀 와이마이는 중국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최대 차량 호출업체 디디추싱도 지난 3월 초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다.

## 인도, 강한 천둥과 번개로 최소 50명 사망

인도 북부지역을 강타한 강한 천둥과 번개로 인해 최소 50명이 사망했다.

30일 BBC에 따르면 전날 강풍과 번개로 많은 마을들에서 벽이 무너져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초강력 황사 폭풍으로 인도 전역에서 100명 이상이 사망한 지 몇 주 후에 발생했다.

인도 당국에 따르면 비하르 주 동부에서는 번개로 인해 20명이 사망했고, 우타르프라데시 주 북부에서는 15명이 죽었다. 자르칸드 주 동부에서도 1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PTI 뉴스에 따르면 우카리칸드 주 북부에서는 나무에 깔려 어린이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번개나 돌풍으로 집이 무너질 때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번개가 치는 주된 이유는 몬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몬순비가 내릴 때 번개가 자주 친다. CNN은 이번 몬순은 예정일보다 삼일 가량 앞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인도 기상청은 북부 지역의 기온이 앞으로 몇 주 안에 4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앞으로 더 많은 강풍과 폭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는 전국에서 한 달 이상이 계속될 것이며, 극한 날씨로 인해 주 전역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韓남성, 일본 NHK 앞에서 흥기난동

최근 일본 공영방송 NHK 본사 사옥 앞에서 일본인 남성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한국인 남성에 대해 일본 경시청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남성(46)은 지난 18일 오후 9시 반경 도쿄(東京) 시부야(渋谷)구 NHK 본사 앞에서 일본인 남성(48)을 흥기로 찔렀다.

피해 남성은 NHK 관련 영상제작사 직원으로, 머리 부분이 15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 남성은 사건 다음날인 경찰에 자진 출두해 “남성을 흥기로 찔렀다”고 자수했다. 그는 발행 동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화가 나서 NHK를 노렸다”라고 설명했다.

## 미시간주서 승합차 스쿨버스 추돌 1명 사망

미국 미시간주 남동부의 고속도로에서 29일(현지시간) 어린이를 태운 SUV 승합차 한 대가 빈 스쿨버스를 추돌해 견인트럭 운전사 한 명이 숨지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른 2명과 어린이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미시간주 경찰은 이 날 아침 디트로이트시 남서쪽 50km 지점의 피츠필드 타운십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며 부상자들은 모두 위독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사망한 견인트럭 운전사 네이더 체하(42)는 엔진 고장으로 잠시 스쿨버스 뒤 편에 정착하고 있다가 이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다행히 스쿨버스 안에는 학생이 없고 비어있어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영양아 건강검진
- 임 검진
-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42%p 감소)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18%p 감소)

※검진에는 건강검진이 포함되거나, 미리 미리 건강 챙기세요.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